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43장(즐겁게 안식할 날)	다 같이
※ 교독문 96(어린이주일)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570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원혜경집사 2부 강항규장로	
응답송	찬양대
금주의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이
*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시편 127:1-5	심재수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행복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 최세열목사	
기도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557장(에덴의 동산처럼)	다 같이
봉헌 (10 구역)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공영순권사	본문 / 마가복음9:23-39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마태21:28-32	출애굽기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능력이 있는	말씀 / 최세열목사	“두 아들의 비유”	금요기도회	
축도 / 최세열목사	“삶을 사십시오”	축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금요일 오후8시	개인기도, 합성기도
				중보기도 / 소예배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김영란	다음주 기도	1부 김애경집사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2부 박홍만장로	
	헌금위원	5월 박상귀 정선례 박현순 정재영	다음주 성경봉독	1부 말은이	
		6월 김기희 나금옥 허웅 김귀례		2부 이영란권사	
식당봉사	금주 마리아회	다음주 마르다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기희권사	
헌신찬양	금주 10 구역	다음주	예배사역팀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주제5:교회)
5/1 제2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에베소서 1장 15-23절)

말씀살피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세 가지를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망이 풍성하고 받을 기업이 풍성한지를 보게 되며, 둘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셋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를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묵상
성도에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일까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아래 있고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졌다(22, 23절)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위치를 말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아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가 만물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참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야합니다. 하지만 때로 교회가 교회 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불화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약해집니다.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복종함으로써 참된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셋째, 구원받은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23절)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물 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만물을 총만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총만하게' 하신다는 말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총만하게 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구원받은 성도는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적용
1.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2.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낀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봅시다.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1절).
솔로몬은 일찍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한 잠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곧 믿음입니다.

2.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3절).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니다. 자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고, 자녀와 남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약점으로 인하여 속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의 약점을 잘 보충하여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 약점을 보충하고, 그 약점 때문에 더욱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3.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4,5절).
자녀는 화살통의 화살처럼 힘이 됩니다. 육신의 자녀가 적다면 영적인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칼릴 지브란은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쏘 대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세상을 향해 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쏩니다. 하나님 향해 쏘 때 놀랍게도 세상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첫째, 물질의 가치를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땀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며, 집일조와 선교와 구제의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바르게 자라납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직업의 종류에 따라 존경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갖습니다. 집 밖에서는 강한 것이 매력이지만 집안에서는 든든한 것이 매력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가정 붕괴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네카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2. 예배 후에 제직회로 모입니다.
3. 전교인 야외예배가 5월8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국토지리원운동장입니다. 10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 노회소식 :
 - 담임목사님이 경기노회 제179회기 노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분당한신교회의 장로임직, 권사임직, 안수집사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30분에 있습니다.
5. 총회소식 : 전국목회자축구대회가 5월2일-3일까지 군산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서영자 안진영 홍강의 김성희 박지영 한상호 차소라 박치국 이영란 김대수 최지현 안해숙 이종봉 이춘호 김태라 양석임 김근중 주종임 김혜경 강항구 류종란
- 감사헌금 : 김동현 양희임 김지환 이영란(2) 박지아 주양호 이문순 심문자 (일천번제) 김동현 (생일) 이춘호
- 건축헌금 : 강항구 류종란 이종준 심문자 홍강의 김성희 한상호 차소라 박치국 이영란 양석임 김혜경 안해숙 베드로회 에스더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하운 최정현 최지현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공영순	3	12,000	50		7	강은순	이영선	3	8,000	150	
2	정정희	신혜영	4	14,000	253		8	김순님	오복실	7	27,000	35	
3	이춘호	황경숙	4	11,000	400		9	김인순	이영란	2	10,000	100	
4	김기희	김경희	4	12,000	50		10	장영분	노순영				
5	이문순	원혜경	5	21,000	200		계			37	164,000	1,288	
6	류종란	김애자	5	30,000	150								

예배시간안내

구분	요일	시간	장소	구분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9시,11시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2:30	전도실

부모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

19세기 초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라는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을 했습니다. 혼자 심심하니까 그림물감을 다 풀어서 자기의 누이동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이 물감이 튀어서 얼마나 지저분하게 되었겠습니까? 잠시 뒤에 부모님이 외출에서 돌아 왔습니다. 집에 들어 와 보니까 방이 엉망입니다. 벤자민은 부모님께서 나를 아주 호되게 야단치겠구나 생각했는데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벤자민을 칭찬했습니다.

“야, 우리 벤자민이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렸네. 보니까 딱 너의 누이동생이구나.”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끌어안아 줍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격려하고 입 맞춰 줍니다. 벤자민은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족하고 못났다고 자꾸 구박하고 나무라지 말고 잘 하는 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나무랄 것 있으면 지금 나무라지 말고 인내하면서 넘어가고 다음에 칭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칭찬하고 나무랄 것도 칭찬으로 바꾸어서 자녀를 격려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켈커타의 어린이집의 벽에 새겨진 글

-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던 인도 켈커타의 어린이집 벽에 새겨있는 글.
1.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사랑하라.
 2.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3.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4.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5.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6. 사리사욕에 눈 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7.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탑을 쌓아라.
 8.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9. 질 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10.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푸다. 하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6-18호 2016.5.1.

부활절 여섯째 주일 / 어린이주일

새 노래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오니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를
거룩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어 품어 안아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록의 세상 속으로
더없이 생기로운 자녀들을 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돌보게 하소서.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사회의 어린이를 돌보게 하소서.
주일학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키가 자라나며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숨죽인 자녀들이
구원의 손길을 부여잡아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신앙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어
복음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소서.

어린이를 내게 오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의 교회행사 안내

1. 어린이 주일 - 5월 1일
2. 아버지주일 - 5월 8일
3. 평신도참여예배 - 5월15일 / 에스더회
4. 전교인야외예배 및 친교모임 - 5월 8일 / 국토지리원
5. 해든출선교활동 - 5월 14일 / 구제사역팀주관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인진영 최지현